



열사의 절규 짓밟는 유성기업, 현대차

교섭은 무대응, 분향소는 탄압

유성기업이 열사와 관련된 모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두차례에 걸쳐 열사 특별교섭을 요구했지만 유성 차본은 개인적인 자살에 대해 금속노조와 교섭할 이유가 없다고 거부했다. 거기다 자신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다. 열사를 모른척 외면하겠단 소리다.

서울시청 앞에는 6일째 침낭 하나, 비닐 하나 없이 노숙으로 버티는 동지들이 있다. 분향소를 설치하기 위해 상경했지만 경찰이 모든 걸 짓밟고 방해하고 있다. 이들은 열사의 영정을 안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분향소가 되고 있다.

당장 노조파괴 멈추고 정신건강 대책 마련해야

지금 열사투쟁은 무시한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유성기업은 단단히 착각하고있다. 창조건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는 열사 정국에서는 대응하지말라고 나와있다. 그러나 이미 망한 시나리오 믿고 따라가다간 일을 더 크게 망칠 뿐이다. 유성기업, 현대차, 노동부, 검찰이 노동자를 죽였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한다.

금속노조는 당장 노조파괴를 멈추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유성기업에는 노조파괴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 우울증에 노출된 인원이 전체 40%를 훌쩍 넘기고 있다. 열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노조파괴를 당장 멈추고 치료조치가 진행되어야 열사와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막을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 열사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한다.

사태를 이렇게까지 만든 데에는 노동부도 한몫 했다. 한 사업장에서 정신건강 이상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산재 승인까지 되고 있으면 특별관리를 했어야한다. 노동부가 신속하게 움직였다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책임 물을 때까지 안 끝난다!

노조파괴로 인한 열사의 죽음이 조합원들 가슴에 너무 아프게 남았다. 이 죽음에 대한 사죄, 보상,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등 모든 책임을 물어야 이 투쟁이 끝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희생은 반복된다. 유성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 뿐이다.

번번한 피엘에이 자본

피엘에이 자본이 임금 체불 해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주주총회에서는 대전공장 사업을 주력으로 정상화하겠다며 임금 체불 해소까지 약속하더니 지금 와서는 대전공장을 매각하겠다고 한다.

경영진 마음대로 매각한다고 끝이 아니다. 그저 비싼 값에 팔아먹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다. 대전공장에는 44명 조합원의 삶이 걸려있다. 80억, 100억 숫자놀음이 아니라 삶이 걸린 문제다. 자본 마음대로 그렇게 끝나진 않을 것이다.

3월 30일 피엘에이의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임금체불 해결 없이, 고용안정 확답 없이는 자본 마음대로 주주총회가 진행되지 못할 것이다.

* 이번주 일정 *

■ 피엘에이 주주총회 규탄 투쟁

- 3/30(수) 08시30분
- 대전 둔산동 굿모닝 레지던스호텔

■ 현대차 규탄! 열사정신계승!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 3/30(수) 15시
-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